

##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이진우(성신여대 대학원 석사)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자국에 대한 이해 및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학습하는 지리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매우 유사하여 우리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쳐온 일본의 지리교과서와 한국의 지리교과서를 분석하여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 내용과 구성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리교과서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교과서 제도와 일본의 교과서 제도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한국 지리교과서와 일본 지리교과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한국 지리교과서와 일본 지리교과서 내용 중 자국 서술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양국의 서술내용 및 서술방식의 차이를 비교한다.

넷째, 한국 지리교과서 내의 일본단원과 일본 지리교과서 내의 한국단원의 서술내용 및 서술방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상대국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교과서 내의 한국단원에서 한국에 대해 잘못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

다섯째, 제3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접국인 중국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현재 대부분의 교과서가 검정제에 의해서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일본은 오랜 기간동안 검정제를 유지해 오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 수정해 왔기 때문에 거의 '자유발행제'에 가까운 반면 한국은 검정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국정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지리교과서와 일본 지리교과서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 내용구성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시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의 지리교과서와 일본 지리교과서의 내용 체계 및 구성의 차이점은 한국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로 세분화되어 단원별로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 방법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지리A」와 「지리B」로 조직되어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 방법의 상호보완 관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 지리교과서와 일본 지리교과서의 자국지리를 분석해 본 결과 양국 모두 학생들의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 사진, 도표 등의 학습자료 등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일본 교과서의 가장 큰 서술특징으로 교과구성 전체적으로는 세계속에서 일본을 다루고 그 다음 소단원에서 일본이 중심이 되어 서술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일본교과서 내의 한국 서술부분을 분석한 결과 일본 교과서에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못 기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양국간 교과서에 올바른

내용이 서술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 민간 차원에서 학술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에 관한 서술비교를 통해 학습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 교과서가 평균 24.3개로 일본교과서의 평균 17개에 비해 더 많이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교과서 출판사별 수록 빈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사진, 도표, 지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 교과서의 수록 빈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사진, 지도, 도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정된 교과서 중에서 한국 교과서는 지학사가, 일본교과서는 제국서원이 가장 많은 학습 자료를 취급하고 있다. 목차와 본문 내용을 통해 주제를 확인한 결과 한국교과서는 중국의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교과서는 중국의 정치, 경제 등 인문현상에 치중해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 지리교과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 지리교과서는 과거의 지리교과서에 비해 서술양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대신에 지도, 그림, 도표 등 학습자료를 통한 설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자국지리 비교에서도 확인했듯이 탐구활동 등을 통한 심화학습이 늘어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의 구성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리과목은 학생들에게 암기과목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연계된 내용으로 조직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용구성 체계의 전환이다. 일본 지리교과서는 세계속에서 특정지역을 설명하는 방식 특히 세계지리와 자국지리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세계와 자국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로 연결하여 생각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연결된 하나의 지리적 사고를 형성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 구성 체계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